

플라스틱 10월 대란설③

플라스틱 최대위기 “정부도 공감”

이희범 장관, 가공기업 애로사항 해결 모색 ...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도

플라스틱 가공기업의 어려움이 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와 관련기관도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8월26일 대기업이 석유화학 원료가격 인상을 연말까지 미루도록 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문에서 “내수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료 가격마저 급등해 가동이 중단되고 생산기반이 무너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유화학기업들은 고유가 속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수출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제품생산 원료를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다”며 원료가 동결과 함께 중소기업이 원료가격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료가 인상을 최소 분기단위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8월30일 대정부 건의서 형식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04년 3-4월 원자재 1차 파동 이후 하락안정세를 보이던 주요 원자재 가격이 7월 이후 급상승해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원자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가 하면 생산량을 축소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토론했다.

무역협회는 국제유가 급상승에 따라 8월 들어 나프타 가격이 톤당 408달러대로 1차 원자재 파동 당시인 3-4월 347.4달러보다 17.4%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에틸렌은 8월 평균 톤당 1050달러로 1차 파동 때인 862달러보다 21.8%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나프타는 42.3%, 에틸렌은 56.7% 급등한 것이다.

무역협회는 ▷정부 차원에서 원자재 구매용 특별자금을 저리에 지원해 주고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을 확대해 수급안정성을 높여줄 것 ▷중소기업의 원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해 줄 것과 함께 현행 3%인 에틸렌 수입관세를 무관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도 기초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자재 구매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9월1일 열린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을 추가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재난은 3-4월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일부 석유화학·철강제품 가격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희범 장관은 또 9월10일 석유화학기업과 플라스틱 가공기업 대표자들을 초청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분기별 가격예고제 도입과 안정적인 원료 확보 등 플라스틱 가공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중재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석유화학기업과 가공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원자재 확보를 돕기 위해 공동구매 품목과 비축품목, 규격을 확대키로 했다.

골판지, 칩보드 등 4종에 불과하던 공동구매 품목에 활성탄소, 스테인리스 판, 전기동, 원목 등 9개 품목이 추가되며 비축품목도 알루미늄, 전기동, 니켈 등 8개 주요 품목에 페로망간, 티타늄 등 2개를 신규 지정키로 했다. 또 니켈, 아연, 생고무, 화학펄프 등 6개 비축품목은 비축 규격을 다양화해 중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공동취재>

<화학저널 2004/09/15>